

이재명 검찰재소환에 민주당, 지지층 결집 '총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발언 이어져 검찰 조사에 "마녀사냥식 언론 플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민주당은 정치적 수사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겨냥해 "징적 죽이기" "이 대표 악마화"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검찰의 야당 탄압을 지지층에 적극 호소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해 '사법리스크'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8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뚜렷한 증거가 없는 억지 조사라고 주장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검무죄, 무검무죄" 바로 윤석열 검찰 공화국이 보여준 공정 잣대의 민낯"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자기 조직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한 야당 대표를 끝내 제거하려 유례없는 인력과 기간을 쏟아부으며 인디언 기우재 지내듯 수사 중"이라며 "하지만 뚜렷한 증거 하나 밝히지 못하자 억지 벌리와 조작 증언을 내세워 망신 주기와 마녀사냥식 언론 플레이에만 급급해한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장동 사업을 오히려 지지체 공익 환수의 모범 사례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대장동 사업 초기 성남시 예산 공익 수입이 4383억원이었는데 사업 진행 중이

던 2017년에 추가로 (민간업자에) 1120억원을 부당시켰다"며 "성남시는 단 1원의 손실 없이 5503억원의 공익을 확보했는데 검찰은 이를 두고 배임이라 주장한다. 공직자가 일을 잘한 건 비난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민간업자들의 수익 배분은 성남시와 관련 없다"며 "뇌물을 받을 생각이었던 굳이 어렵고 복잡하게 민관 공동 개발할 이유는 없다.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100% 민간 개발하고 뒷돈을 받는 게 훨씬 쉽고 안전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전날 입국 직후 수원지검으로 압송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현재 검찰은 과거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을 당시 쌍방울이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 전 회장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이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재명과 엮어서 연일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며 "가짜 뉴스 양산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선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를 지역 토착 비리 범죄라는 프레임에 제시했다"며 "김 전 회장은 이재명을 전혀 모른다고 했음에도 허위 발언이자 말 맞추기 시도로 규정하는 망언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에 따른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일이 설 명절 이후로 쏠려지면서 이른바 '설 밤상 민심'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당 지도부의 강도 높은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 대표가 직접 설 명절을 앞두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새해 인사와 안부를 묻는 전화를 돌리는 중이라는 말도 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건으로 출석한 지 몇세 만에 재차 소환 조사를 통해 보복하자 내부 결속 다지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 소속 한 재선 의원은 "이 대표의 전화를 받았고 주변에도 하는 것 같다"며 "명목은 설 명절이고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수사도 들어오고 하니 단도리를 치는 차원인 듯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당 차원이 아닌 개인 문제로 좁혀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나온다.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만큼 이 대표와 지도부의 내부 단속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의 검찰 수사를 둘러싼 당내 분위기에 대해 "양론으로 나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무래도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 상황이 상당히 민주당을 옥죄고 온다는 반감이 많다"며 "출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다. 하지만 전수조사를 해본 것은 아니라 정확히 어느 의견이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이슬기자

민주당,尹 'UAE 적=이란' 발언에... '외교 참사' 맹공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 이란 관련 발언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면서 맹비난했다.

이재명 대표가 18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근거 없이 이란을 겨냥해 적대적 발언을 내놨다"며 "UAE를 난처하게 만들고 이란을 자극하는 매우 잘못된 실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현지 교민은 물론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우리 선박도 적잖은 곤경을 당할 수 있다"며 "기초적 사리 판단도 못하냐"라고 지적했다.

또 동북아 정세를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격동기로 평가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실용적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전쟁 불사를 외치고 친구의 적은 나의 적이라고 하나"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단체포적 편향 외교로는 국민과 나라 이익을 제대로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순방만 나가면 국민이 걱정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더는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박 원내대표는 "남의 나라 외교에 참견하는 것도 문제인데 대통령이 한술 더 떠 미국 관계를 적으로 규정하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UAE와 이란은 최근 관계를 개선해 가는 중인데 난데없이 한국 대통령이 평화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라며 "장병 격려 발언이었던 해명은 외교 참사 시준2에 불과하다"고 했다.

나아가 "집권여당 대표는 이란이 UAE 적대국이 맞지 않느냐며 불난 집에 부채질을 했다"며 "언제까지 사고는 대통령이 치고 부끄러움은 국민 뉘어야 하나"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외교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외교라인 교체는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은 겸허히 사과하고 외교라인을 전면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최고위원들도 거들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남의 나라 국가 연주 중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실수했으면 고치면 될 일을 변명, 고집 피운다"며 "일본 국가 연주 중에도 손을 얹을 건가"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 이란 관련 발언을 두고 "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언론 탓을 할 건가"라며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이고 적은 최소화해야 하는데, 가는 데마다 사고치고 적을 만든다"라고 했다.

김재환기자

민주당 "尹, 당 대표 선거 개입보다 대통령 본분 충실하라"

대통령실 나경원 관련 공지 비난 "순방 중 절박한 의중 반영됐다" "외교 참사에도 당권 개입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순방 기간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관련 공지를 낸 데 대해 "(당 대표 경선) 선거 개입보다 대통령 본분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본인 허에서 비롯된 외교

참사에도 제 사람 심기를 더 급하고 중요한 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나 전 의원 상대 대통령실 공지를 말하면서 "윤 대통령의 급박했던 순방 중 만사를 제끼고 나온 반박이니, 절박했던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국제 특급우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 전 의원 행보가 윤 대통령 모욕인진 알 수 없다. 친윤 감별 대화로 전략한 국민의힘 전당 대회에 대해 얘기하는 건 오지랖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해의 순방 때마다 남들할 수 없는 대통령 발언, 행보로 온 국민이 아연실색하는 와중에도 윤 대통령은 누군가 면박주고 조리돌릴랄 궁리로 가득 차 있었던 데 경악할 따름"이라고 했다.

아울러 "본인 실언으로 훼손된 국제 수습은 고민해 본적 있나"라고 했으며 "외교 참사에도 당권 개입이 먼저인 윤 대통령, 선거 개입보다 본분에 충실하라"고 비판했다.

서선욱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